

연중 제 28 주 일

기도서 P. 454 A해

제1독서 (이사 25, 6-10)
제2독서 (골리 4, 12-14, 19-20)
복음 (마태 22, 1-14 43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천국잔치와 세상잔치

김 준 호 신부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노라”
아니 누가 초대하는데요?

글씨을시다. 고관벽에서 아니면 대제법 벽에서 초대하는 겁니까? 저도 그 초대권 한 장만 구합니다. 얼마나요? 저도 그것 한 장쯤은 살만한 돈은 있다구요. 부동산 투기에서, 아파트 투기에서 한 몫은 벌어들였거든요. 아참, 그 언젠가 천당직행권도 판다는 양반에게 프라스틱 번호판 몇장도 사났습니다만, 뭐 제가 처 자식이 있습니까? 그저 계몽으로 한장이면 족할테데요. 그래서 나머지 금년농사에 골탕만 먹고 논바닥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느 농부 아저씨에게 뭐 버렸습니까. 어때요? 이런일도 신행이 아닙니까? 겁없이 좇아 먹고도 소화제 없이 거덕거리고, 매절 매석하고도 배두드리는 자도 있겠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차린 잔치상에 그런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자 오지도 않을겁니다.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을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높은 빌딩 꼭신한 돈더미 속에서 호의호식하는 양반들이 당신이 차렸다는 그까짓 시시한 잔치상을 쳐다나 보겠습니까? 잘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도 굶주려 배고프고 그저 먹을것에만 허기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저 쾡하게 딸린 배고픈 눈동자, 그래도 당신만을 쳐다보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 얻어 먹은것, 이 세상에서 놀림을 당한것, 이 세상에서 빼앗긴것, 여하튼 웅당 자기것인데도 힘이 없어서 남에게 빼앗기면서 서럽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이 꼭 몇 백배 천배 값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저 선하게 살아보려는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저 자기네 배만 부르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히 참고 눈물로 견디면서 당신께 떨리는 두손 모우고 다소곳이 고개숙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던 보람이 있다는 말씀이, 어휴 조금은 후련하네요.

저는 꼭 믿습니다. 제가 가진 저자씨보다도 더 작은 신앙으로 꼭 믿습니다.

당신이 차린 잔치상,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누리고 지낸 사람에게는 먹갈것없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외면할것 모르지만 어디 우리네 같이 그저 허기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푸짐한 상입니까? 지금은 약이 오르고 서럽더라도 당신의 그 잔치상만 믿고 살립니다. 그저 견딜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이세상 잔치보다 당신의 잔치에 꼭 초대되고 싶습니다.

“하늘 나라는 어느 임금의 혼인잔치를 베푸것에 비길 수 있으리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니라”

(이리 창인동 보좌신부)



추곡 수매와

노풍 피해 보상

—한국 가톨릭 농민회의 견해

경제개발의 궁극의 목적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경제개발 방식은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국민경제의 기초부문인 농업과의 연관효과를 도의시한 공영화 내지 수출신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왔고, 농민들의 노력의 댓가는 저곡가 정책으로 너무나 값없이 취급 당해 왔다.

77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회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은 가마당 일반쌀에서 15,600원, 통일쌀에서 13,800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쌀값 결정에 쌀의 생산자인 농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회의는 이러한 농민의 출혈은 중지되어야 하며, 78년 추곡수매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78년 추곡수매가는 쌀 1가마당(80키로) 통일계통은 45,000원 이상, 일반계통은 47,000원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시차제 수매, 외상수매를 없애고 전량 현금 수매할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서명운동중임... 9월 27일 현재 5만여명 참여)

특히 금년에 대한 시차제까지 짓밟히면서 정부가 강권한 “노풍”에 만연한 병충해로 농민의 뼈아픈 고통은 어느때보다도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 농지세 감면,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미온적인 보상에 앞서, 평년작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존권을 깎았었던 농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농민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농민의 증오와 울분은 해소될 길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총화는 이룩될 수 없는만치 본회의는 역사의 주체인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함을 주장한다. (1978. 9. 30)

숲 정 이 산책



오래 일하실 분을 선출 하십시오...



현대에 있어서의 순교의 의미와 순교자상(2)

한 정 현(아우구스티노)

둘째로, 종교의 자유가 국법으로 인정되는 20세기 후반인 오늘날도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가? 즉, 현대에 요구되는 '순교자상-현대의 순교자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앞서, 우리는 순교자의 전통적인 상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오 24, 9)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죽음의 원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순교자들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침내 죽음을 넘어서신 승리를 가져 왔듯이, 순교자들의 죽음도 승리를 가져 온다는 점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오 16, 24-25)

또한,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을 택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라는 게, 그들의 죽음이 그 후예인 우리들의 신앙을 자극·받아시키기 때문은 아닙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흘림만으로는 부족해서 또다시 순교자들의 피마저 잔혹하게 강요하기 때문-누가 강요하든-은 더 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을 택한 참된 동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타오르는 열렬한 사랑'이, 그들이 죽음을 택한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층 수월히 본래의 문제로 들어가 '현대에 요구되는 순교자상'을 부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피흘림'이 귀착되는 점인 '사랑'에서 현대의 순교자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순교자들의 피흘림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호되는 나라에 한해서, 현대에 요구되는 순교자상은 '피' 대신에 '사랑'의 순교자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피흘림'이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말한 '냉철한 두뇌에 따스한 마음'이 요구되는 현대인에게는 사랑의 순교자상은 참으로 간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바오로 6세는 그의 임종에 앞서, “전세계의 굶주리고 병들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 또한 잊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가 더욱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현대는 순교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현대에 요구되는 순교자상은, 사랑으로써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이웃' 속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도 있겠고, 외면 당한 나환자와 병자들도 있겠고, 또한 불의와 권력에 짓밟혀 투옥된 사람들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계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이 현대의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예수를 외면하고 있지나 않았을까요? (마태오 25, 42-43)

II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조화된 모습을 보여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도 '순교의 현대적 의미'와 '현대의 순교자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나누어서 각각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이 이처럼 이중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단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의'와 '사랑'이 서로 포용하여 화해하지 않고 '소 담 보듯 닭 소 보듯' 떼면떼면하는 한, '정의'와 '사랑'-둘 가운데 하나도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두 걸을 지나는 공전은 하나 있고, 단 하나뿐이다'라는 기하학에서의 공리처럼, '정의'와 '사랑'은 단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선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야말로 이 '신앙'의 가장 완벽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야말로 '한 손에는 사랑, 다른 한 손에는 정의'라는 열쇠를 쥐고 완덕에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써 '정의'를 부르짖지도 않았고, 더우기 '사랑'을 외치지도 않았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써 이것들을 결단(決斷)하였을 뿐!...

<복자성당>

(환) 호남지구 마리아 빨리 1978 (영)

78. 10. 28 ~ 29, 전주 성심 여중고 강당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김제 평화의 모후 푸리아(Cu).

남원 칼렐의 모후Cu.

둔율동 루르드의 모후Cu.

무주 병인의 나옴Cu.

삼례 셋벨의 모후Cu.

월명동 바다의 별Cu.

이리 치명자의 모후Cu.

정음 사도의 모후Cu.

중 앙 오월의 마돈나Cu.

팔마 그리스당의 도움Cu.

활열 그리스도왕의 모후Cu.



마리아 뿔리의 알맹이

〈=모든이를 하나로=〉

끼 아 라 루 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음 1943년, 내가 사는 이태리 곳곳에는 폭탄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을 때였다. 성경책을 들고 방공호로 달려간 나(끼아라)는 위험중에도 성경책을 펼쳐들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17:21) (中略) 나는 하나님의 은총안에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주교님을 찾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하고 주교님은 감탄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운동은 벌리, 매우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멀리 퍼져 나가게 된 첫째 이유는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나의 이유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이름으로써 우리 가운데 제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여 세상을 이기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말한다.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회개이다. 곧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들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룬것을 보고 많은 감탄을 받았으며, 또한 초대 신자들의 공동체 처럼 다양각색의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룬 것을 보고 깊이 감동되었다.

우리 가운데 제신 예수님은 또한 성소를 증가시켰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품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또 그들의 주교님과 얼마나 큰 일치율이 이루게 되었는지... ("모든이를 하나로" 책에서)

호남지구 마리아 뿔리-10월 28일(3시)-29일(4시)

전주 성실여고 강당

주관-국제 마리아 사업회 한국지구

□ 긴급동의 □

누가 이 사람들을 모르시나요?



지난 9월 22일 밤, 서울 기독교회관에서는 「인천 통일방직의 동물사전」에 대한 연구회가 있었다. 그들이 당한 수모와 어려움을 극으로 만들어 호소하고자 했을지라 그러해, 그 출연자 10여명과 연구 관람을 한 이종각(前 통일방직 노동자 지부장)·이소선(故 전래일의 모친)·인천 산업선교회의 직원들·원종모방 노동자들 다수가 연행되었다 한다. 이들은 구류 20일을 받았다 한다. (이장은 J.O.C 전주교구 연합회가 제공한 소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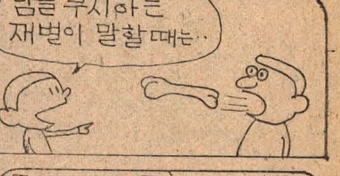
지난 4월에 발표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를 밑바탕으로 해서,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통일방직을 비롯한 여러 산업체에서 가톨릭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돕는 일」이야 말로 정의구현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한국의 100만신자에게 호소할 바 있다.

고통을 받는 이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이 사람들을 모르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도움자! 배고프고, 헐벗었으며, 육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자.

*성금보내실 분은 <순정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요심이 (272) 김병오



해성 중·고 동창회

- 때 : 1978. 10. 29(일) 오전 10시
- 곳 : 모교 과학실
- 안건 : 임원개편, 동창회보발간
회원명부작성, 기타
- 회비 : 2,000원

◇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 고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코버)

☆ 사진예술 창조의 집 ☆

현대칼라
특약점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
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합
니다



T. ③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성조(그레고리오)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개업 안내

시내 중앙동에서, 제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
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78년도 사목활동 평가 및 79년도 계획수립...16(월)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 참가대상...① 제위신부님, ② 각 분당 사도회장님, ③ 교구내 수도회 대표 각 1명 (샤르트르, 바오로 회, 방지교회, 동정성모회, 예수의 작은 자매회, 거룩한 말씀 수녀회) ④ 성체회 본원 대표 2명, ⑤ 교구단위 각 단체장 (교리교사회, 동민회, 대학생회, 방지저3회, 빈첸시오회, 약사회, J.O.C, L.M) ⑥ 성심·해성교장
- 호남지구 마리아 빨리...28(토)~29(일) ※ 참가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문의바람.
- 영생대학 가톨릭 학생 모임...29(일) 오전 10시, 가톨릭 학생회관(전북대학교 입구)
- 성령 세미나...18(수) 오후 6시, 정읍성당. ※ 매주 수요일만 실시됨 (11월 22일까지)
※ 이미 성령 세미나를 받으신 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소신학교 입학 희망자는 분당 신부님께 문의...성소 계발은 우리의 사명!
- 다음 주일은 전교주일...전교회원이 됩시다! (회비...최소 500원, 특별회비 2,000원 이상)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16(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 특강...문익환 목사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응 북
③3874 보좌 신부 보좌 영 한
사도 회장 사도 신부 이 박
회장 이 성 복

- 성모회 월례회: 15일(일) 공식 미사후
 - 상지회 월례회: 18일(수) 오후 6시
 - 이빌지니아 수녀님 다른분당으로 가셨습니다
 - J.O.C 중앙책슨 회장 개신: 남자회장-조용호 여자회장-임연이
 - 미사 참례때 의복을 단정히 하세요
 - 전례담당(공식미사)
15일: 복사-이강호, 엄관생, 해설-양학도
22일: 복사-김낙준, 김정생, 해설-임주택
- 지난주 봉헌금: 150,935원

(노송동)

전화 ④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보 권 용
사도 회장 사도 김 성 록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신용조합 월례회: 18일(수) 저녁 미사후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람
- 전교주일: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전교 회비는 연중 신자들의 전교에 대한 의무입니다.
한가정도 빠짐없이 28일까지 전교회비 완납바람
(최하: 500원, 특별회비: 2,000원 이상)
- 미사시간을 정확히 지킵시다
미사시간 10분전에 성당에 도착, 미사도구를 준비하여 미사에 참여, 미사도중에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십시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보 감 덕 행
사도 회장 사도 유 제 상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
많은 기도와 전교활동을?
- 4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부녀부 회원과 권세시리아·로사리아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당신의 자녀는 교리반에 충실히 보내고 계신지요
자녀 종교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
교리: 2시, 미사: 3시
 -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수) 오후 8시, 매주일 오전 11시
 - 젊은이에 광장에 다함께 미사와 성가를...
일시: 매주(화) 저녁 7시 30분,
준비물: 성경, 성가책
- 지난주 봉헌금: 81,95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사도 조 성 호
사도 회장 사도 조 성 호

- 봉헌금 미수는 없는지 정성들여 의무를 다 합시다
 - 제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일교장: 오늘-이갑진 형제, 다음주-임한진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30,29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원 택
사도 회장 사도 박 장 준

- 부녀주일: 10시 미사후
- 반상회: 9반-17일, 10반-18일, 11반-19일, 12반-20일
- 미사시간 변경: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일-월·목: 오전6시, 화·수·금: 저녁7시30분
토요일-아동미사: 오후4시, 중·고생: 저녁7시30분
일요일-오전6시·10시, 오후7시30분
- 축하합니다: 주일학교 체육대회 3등
- 신축현금: 9반-김종근(5,000), 이길우(20,000)
조낙원(10,000), 제11반: 은성대(6,000), 은재희(50,000), 이점두(10,000)
제12반: 김수중(3,000), 김영기, 김중수, 주길남(각 10,000), 고동훈(15,000), 유춘자(15,000), 박옥순(10,000), 방진옥, 양화성(각 3,000), 이호범(5,000) 김길성(50,000), 지난주 봉헌금: 39,815원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사도 이 강 노

- 축! 제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최우수상
 -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목) 오후 3시
빠짐 없이 참석바랍니다
 - 젊은이 모임: 오늘 9시 (유치원) 빠짐없는 참석은...
 - 가정방문: 다음주부터 실시예정
 - 년말이 다가옵니다 (빌린 봉헌금 결산합시다)
 - 유아세례식: 10월 29일 공식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11,32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보 이 순 성
사도 회장 사도 유 석 중

- 피미시움 월례회: 오후 2시
 - 열세자 기념사진: 사무실
 - 예비자 교리: (수·목) 저녁 8시
 - 마리아 빨리 신청: 21일까지
 - 장우회 선당주변 미화: 10시 미사후
※ 10월=목주성월-봉헌의 달
- 지난주 봉헌금: 196,780원 교무금: 308,00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사도 채 수 현

- ※ 영세식: 10월 22일 공식미사 중
- 매 미사전 로사리오 기도: 목주 지참 하세요
 - 어머니 미사: 매 금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교무금: 분당의 어려움을 생각하세요
 - 소신학생 선발: 서울 성신교교 (소신학교) 지망생은 분당 신부상담
 - 수녀원 증축 신임금
납입자: 조형숙, 박갑래, 김메레사, 박막다레나 (각 1,000원) 소나일, 김성실, 송길정(각 2,000원), 고태석(5,000원), 전영자, 소병희(10,000원), 김화자(200,000원) 납입계: 569,000원, 신임계: 764,000원
- 지난주 봉헌금: 34,360원